

정치관심도, 정치이념성향, 정보탐색목표가 정치정보탐색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을 중심으로

양 윤[†]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홍 수 정

한나라당 홍보팀

본 연구는 유권자 연구에서의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성향, 그리고 판단/결정 연구에서의 정보탐색목표를 독립변수로 선정하고, 정보탐색양, 탐색패턴, 탐색정보유형을 통해 유권자의 정보탐색행동을 살펴보았다. 실험결과, 탐색양의 경우, 정확목표를 가진 유권자가 보존목표를 가진 유권자에 비해 탐색양이 유의하게 많았다. 탐색패턴의 경우, 대부분의 실험참가자는 속성중심의 탐색패턴을 보였다. 탐색정보의 종류의 경우, 모든 조건에서 유권자는 사회정책을 가장 많이 보았다. 또한 정치관심도가 낮으면서 진보이념을 가진 실험참가자는 대부분의 정보종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반면, 정치관심도가 높으면서 보수이념을 가진 참가자는 정책에 대한 정보에 높은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정치관심도, 정치이념성향, 정보탐색목표, 정치정보탐색활동

[†] 교신저자 : 양윤,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과, yyang@ewha.ac.kr

최근에는 마케팅 개념을 정치 환경에 도입한 정치마케팅이란 새로운 분야가 출현하였으며, 영미를 중심으로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실제 적용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예를 들어 Crosby와 Taylor(1983)는 소비자행동연구를 유권자의 투표행동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O'Cass와 Pecotich(2005)는 소비자행동의 개념들을 이용해 선거전략수립에 마케팅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Less-Marshment(2001) 역시 시장 지향적 패러다임을 적용하여, 유권자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서구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소비자행동이론과 마케팅기법을 정치 및 선거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투표요인연구 정도에 머물 뿐 유권자를 소비자 관점에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기존의 투표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정치관심도(예, Powell, 1986)와 정치이념(예, 이갑운, 이현우, 2008)이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했지만, 실제로 정보탐색행동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를 소비자라고 보고 유권자의 정보탐색행동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 연구를 통해 투표결정요인으로 밝혀진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성향이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정치정보탐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통해 검증해 본다. 둘째, 소비자판단 및 결정 연구를 통해 정보탐색요인으로 알려진 정보탐색목표가 유권자들의 정보탐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소비자행동연구의 개념을 유권자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한다. 셋째, 정치정보 탐색행동

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정치관심도, 정치이념성향, 정보탐색목표가 상호간에 어떠한 상호작용효과를 가지는지 알아보고, 이와 같은 상호작용효과가 유권자의 정보탐색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정치정보 탐색행동을 보다 잘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정치관심도

정치관심도와 선거참여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권력의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선거를 통한 당선이라는 점에서 선거참여는 다양한 정치참여 형태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많은 학자가 선거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연구하였으며, 강경태(2003)는 주요 변수를 크게 사회적 모델과 심리모델로 구분하였다.

사회적 모델은 유권자의 교육, 연령, 지역과 같은 사회적 변수를 통해 선거참여를 설명한다(이남영, 1993; Wolfinger & Rosenstone, 1980). 이러한 사회적 변수는 많은 나라에서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는 것이 사실이나, 6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조건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저하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함에 따라 약화되었고, 유권자의 정치에 대한 심리적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심리모델이 등장하였다. 심리모델에서 선거참여 변수로 보는 요인에는 정당성향(Teixeira, 1992; 박찬욱, 1993에서 재인용), 정치효능감(Hughes & Conway, 1997; Powell, 1986)¹⁾, 정치관심도(Powell, 1986)

1) 정치 행위자가 자신의 노력으로 정치 환경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의미한다. 정치효능감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선거참여도가 높다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요인은 정치관심도이다.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 것은 평소 정치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각종 정치행위에 참가하고, 정치지식이 많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강경태, 2003). 정치관심도가 선거참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지만(Mibrath & Goel, 1977), Powell(1986)의 6개국 비교연구에 의하면 정치관심도가 선거참여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한 유권자의 선거참여율은 평균 72%였으나, 정치에 관심이 높다고 한 유권자의 평균 참여율은 90%로 많은 차이가 났다. 또한 정치관심도 중 특정 선거에 대한 관심유무는 선거참여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Conway(1991)의 연구에서 정치관심도는 유권자가 선거에 가지는 관심의 지표이며 정치관심도가 높을수록 선거참여가 높아진다고 보았다. 그 밖의 다수의 연구들도 정치관심도가 높을수록 선거참여의사와 비례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박찬욱, 1993; Verba, Schlozman, & Brady, 1995).

국내 연구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연구가 존재하는데, 강경태(2003)에 의하면 선거에 대한 관심유무로 측정된 정치관심도가 대선참여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정치관심도와 선거관심도는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 상관관계가 크다. 김용철과 윤성이(2004)의 연구에서도 선거관심도가 투표참여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았다.

정치관심도와 정치정보 획득

정치관심도가 정치정보탐색행동연구에서 중요 분다.

요한 변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정치관심도가 정치정보획득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Delli와 Keeter(1996), Banwart(2007)는 남녀 성차연구를 통해서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정치관심도와 정치정보를 가지고 있고, 높은 정치참여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냈다. 정치에 관심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정치정보를 확보하려 하기에 풍부한 정치정보를 갖게 되고, 정치정보가 많을수록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보다 숙련된 정치적 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 Verba 등(1997)도 남자의 정치관심도가 여자에 비해 높았으며 이에 비례하여 정치정보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근거로 하여 정치관심도가 정치참여의 강력한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O'Cass와 Pecotich(2005)도 소비자이론을 적용한 유권자 투표행동연구를 통해서 정치관심도와 위협도가 높을수록 정보탐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정치관심도와 정치정보의 획득은 긴밀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관심도, 정치정보, 정치참여의 세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 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이념성향

균열구조와 투표결정

Lipset과 Rokkan(1967)의 균열구조 연구에 따르면, 사회균열이란 사회구성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의해서 집단이 구성되고, 집단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갈등이 조직적으로 표출되는 현상이다. 균열은 특정 성격을 가진 공동체의 구성원을 다른 공동체로부터 정치적으로 분리시키는 작용을 한다. 각 구성원은 자신의 가치관을 근거로 정당, 후보자, 정치체도를 인식

하고 평가를 위한 준거들을 만든다. 따라서 균열구조는 유권자의 궁극적인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유권자의 지지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유지되는 정당체계 및 정치구조 자체에도 영향을 준다(마인섭, 2003; Rae & Taylor, 1970). 따라서 근대정치구조가 형성된 이래로 균열구조에 대한 연구는 정치학자들의 주된 관심사였다.

Inglehart(1977)는 경제적 풍요와 평화가 정착되면서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새로운 균열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성장-분배와 같은 가치 갈등보다는 환경, 여성권리, 인권, 교육 등과 같이 삶의 질과 관련된 새로운 가치가 전통적인 계급적 균열을 완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이 균열구조는 녹색당과 같은 신생정당을 출현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유권자의 투표결정을 균열구조를 통해 설명하려는 많은 연구가 있다. 윤천주(1987)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화 이전에는 도시-농촌으로 구분되는 지역균열이 선거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러한 지역균열은 약화되었다. 오히려 1987년 절차적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유권자의 투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영호남을 중심으로 구축된 지역균열이다(안순철 & 조성대, 2005; 이갑윤, 1998).

최장집(2003)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역균열 구조는 지역과 계급개념이 결합되어 나타난 유권자의 비합리적 투표심리와 정치엘리트의 동원전략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주의를 이용하여 유권자의 편향심리를 유발하는 지역정당은 쉽게 쇠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2002년 16대 총선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지역균열구조는 대부분의 선거결과를 설득

력 있게 설명한다. 지역균열을 바탕으로 한 정당체계는 지배적 균열구조에 상당한 변화가 수반되어 더 이상 유권자 동원기제로 활용될 수 없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다(조성대, 2008).

우리나라 유권자 투표결정을 설명하는데 지역균열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대안적인 균열구조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2007년 대선에는 세대와 이념균열이 새로운 균열구조로 등장하였다(강원택, 2003; 조중빈, 2003).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세대균열보다는 이념균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념분열의 등장과 지역균열의 대체가능성

우리나라에서 지역균열구조는 많은 문제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선거결과가 인물이나 정책 위주보다는 지역이기주의로 결정되었고, 의회 및 행정부의 성과평가가 지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균열구조의 모색은 불가피하였고, 세대와 이념균열이 지역균열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졌다.

우리나라의 이념균열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강원택(2003)은 2002년 대선은 외형적으로는 지역주의적 투표행태가 지속된 것처럼 보이지만, 경험적인 연구결과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세대 간 이념 차이가 지지후보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또한 이념균열이 지역균열과 중첩되어 있지 않은 특징을 보이므로 시간이 흐를수록 지역균열은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최준영과 조진만(2005)의 지역균열과 이념균열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영남 대호남의 지역균열을 가능하게 하는 지역적 동

질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그 변화의 기저에는 이념균열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직 외형적으로는 지역적 대립구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념균열이 본격적으로 지역균열을 대체했다는 주장은 시기상조일수 있다고 하였으나, 기존 지역균열의 변화가 시작된 것만은 틀림없으며 특히 이념균열의 조짐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갑윤과 이현우(2008)도 객관적 이념평가를 이용한 이념의 투표결정 영향력 연구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정당 및 정치지도자의 이념분화가 이루어졌으며, 17대 대선에서 이념이 투표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정보탐색

사람들이 정보를 선택하고, 처리하는데 내부적 탐색동기와 외부적 탐색동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Kim(2007)의 연구에 따르면, 내부적 탐색 동기는 개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관심영역에 대한 관심으로 매우 주관적이다.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부적 탐색동기가 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에게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다른 탐색동기에는 외부적 동기가 있다. 외부적 동기는 환경이나 상황에서 발생하는 동기로 외부적 동기가 정보선택과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가 있다(Lau, 1995; Lodge, 1995).

외부적 정보처리목표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와 관련되어 정확목표와 보존목표로 구체화된다. Kruglanski(1990)의 연구에 따르면 정확목표는 종결회피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종결회

피욕구란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피하려는 욕구로 자신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한다. 따라서 정확목표는 자신의 판단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계속하여 찾아내려는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반면 보존목표는 종결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종결욕구는 특정 주제에 대한 결론을 얻고자 하는 욕구로 자신의 신념을 고정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추구하지 않고 탐색을 종결하려는 심리적 활동으로 이어진다. Gollwitzer와 Kinney(1990)도 정확목표는 상대적으로 정확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정보처리를 촉진시키며, 보존목표는 선택한 결과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현재의 태도를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향적이며 폐쇄적인 정보처리를 촉진시킨다고 보았다.

Kim(2007)은 정확목표와 보존목표가 정보탐색행동에 어떤 조절적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보탐색목표와 특정영역의 탐색, 정보탐색패턴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정확목표는 보다 광범위한 정보영역을 탐색하며, 신중하고 보상적인 탐색을 실시하게 하는 반면, 보존목표는 편향된 비보상적 탐색을 유발시킨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적 탐색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실험참가자에게 정확목표와 보존목표를 조작하였고, 이와 같은 정보탐색목표가 정치정보를 탐색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Bettman과 Jacoby(1976)에 따르면 정보탐색활동은 탐색의 정도, 내용, 순서라는 3가지 특징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탐색의 정도란 탐색하는 정보의 양을 의미한다. 주로 탐색하는 정보의 수를 통해 측정되나, 탐색시작부터 대

안선택까지 걸린 시간을 통해 측정할 수도 있다. 정보탐색내용이란 획득하는 정보의 종류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학에서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진 여러 요인들을 정보속성으로 제시하였고, 각 특성을 가진 유권자가 주로 어떤 정보를 탐색하는지를 알아보았다.

정보탐색의 순서란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 정보세트 안에서 분산된 정보를 선택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로이다. Bettman과 Jacoby(1976)는 탐색순서 관점에서 탐색패턴을 구분하였다. 첫째는 상표중심처리(choice by processing brands: CPB, 이하 후보자중심처리라 함²⁾)로 이는 여러 대안 중 우선 하나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다수 항목의 속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후, 다른 대안을 선정하여 이에 관한 속성정보를 다시 수집해 나가는 방식이다. 둘째는 속성중심처리(choice by processing attributes: CPA)로 하나의 속성항목을 선정하여 해당속성에 대해 여러 대안이 갖는 가치를 결정한 후, 두 번째 속성을 선정하여 각 대안의 가치를 결정해 가는 방식이다. 일부 소비자는 탐색과정 동안 탐색패턴을 변경하기도 하는데, 이를 피드백에 의한 처리(choice by feedback processing: CEP)라고 한다.

이는 우선 결정의 초기단계에서 상표(후보자)중심 또는 속성중심처리로 정보를 탐색하고, 후기단계에서는 특정한 대안들 사이에 다

2) 상표중심처리패턴(Bettman & Jacoby, 1976)이란 용어는 학자에 따라서 대안중심처리(alternatives based processing)패턴으로 불리기도 하며(Ford, Schmitt, Schechtman, Hults, & Doherty, 1989), 정치정보탐색의 관점에서는 후보자중심(candidate-centered)패턴으로 불리기도 한다. 본 논문은 정치정보탐색과 관련된 논문이므로 후보자중심패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른 형태의 처리로서 일련의 쌍대비교를 하는 것으로, Payne(1976a)은 이를 단계전략이라고 하였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상표중심처리 또는 속성중심처리 중 하나의 패턴을 선택하여 탐색과정 동안 일관성 있게 사용한다(유동근, 1990). Russo와 Doshier(1983)에 따르면 속성중심처리는 상표중심처리보다 인지적 노력이 덜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쉬운 전략이다. 따라서 정보처리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경우 속성중심처리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유권자를 소비자로 간주하고 소비자의 정보탐색행동에 대한 연구를 유권자에게 적용해 유권자의 정치정보탐색행동을 분석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대생 유권자의 정치관심도, 정치이념성향, 정보처리목표에 따라서 정보탐색행동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컴퓨터 정보 제시판 방식을 이용해 탐색적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가설을 설정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 연구문제 1.** 유권자의 정치관심도는 정보탐색양과 탐색정보종류에 차이를 발생시키는가?
- 연구문제 2.** 유권자의 정치이념성향은 탐색종류에 차이를 발생시키는가?
- 연구문제 3.** 유권자의 정보탐색목표가 다를 경우, 정보탐색양과 정보처리패턴에서 차이를 발생시키는가?

방 법

연구 대상

사전조사

2009년 3월에 심리학과 정치학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이화여자대학교 학부생 412명을 대상으로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성향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중복으로 설문에 참여하였거나, 한 가지 설문에서라도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384명의 설문지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설문에 참여한 학생은 참여점수를 받았다.

본 실험

사전조사에 참여한 384명의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본 실험에 적합한 152명을 선별하였다. 본 실험은 실험실에서 5명 이내의 소그룹으로 진행되었고, 실험참가자는 기념품을 받았다. 실험에 참여한 152명의 평균연령은 21.3세였으며, 최소 18세부터 최대 26세였다. 정치외교학 전공생은 43명, 그 외 전공자가 109명이었고, 정치외교학 관련 과목을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은 120명, 그렇지 않은 학생은 32명이었다. 정치관심도 저/고, 정치이념성향 진보/보수 범주에 포함된 실험참가자는 전공과 정치외교학 관련과목 수강여부와 관계없이 분포되었다.

실험설계

본 연구의 실험설계는 2(정치관심도: 저/고) × 2(정치이념성향: 진보/보수) × 2(정보탐색목표: 정확/보존)의 삼원완전무선요인설계이다. 총 152명의 실험참가자를 8개의 조건에 각각 19명씩 무선 할당하였다.

독립변수

정치관심도.

정치관심도에 대한 연구들은 정치관심도가 정치참여와 정치지식습득욕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고, 정치관심도를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 언론에 대한 관심, 선거에 관한 관심수준을 통해 측정하였다(박찬욱, 1993; Banwart, 2007; Verba et al, 1997). 이러한 연구결과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유권자의식조사 설문지를 바탕으로 하여 선거참여에 대한 질문과 신문과 뉴스시청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된 정치관심도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총 4문항의 정치관심도 설문문항(예: 당신은 평소 정치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평소에 TV의 정치관련 뉴스를 어느 정도 시청합니까? 당신은 평소에 정치관련 신문기사를 어느 정도 읽습니까? 당신은 평소에 어느 정도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은 Likert 5점 척도(예, 1점: 전혀 관심이 없다 - 5점: 아주 관심이 많다)로 구성되었는데, 전체 정치관심도의 중앙치 값($M=3.50$)을 기준으로 중앙치보다 값이 작으면 저관심으로, 중앙치보다 값이 크면 고관심으로 분류하였다. 저관심($M=2.50$)과 고관심($M=4.12$)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t(150)=-20.36, p<.001$.

정치이념성향.

정치이념성향은 보수와 진보로 구별하였고(김주찬, 윤성이, 2003; 윤종빈, 2007),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객관적 이념성향평가를 이용하였다. 객관적 이념성향평가란 구체적인 정책문제에 대한 응답을 이용하여 개개인의 보수와 진보성향을 알아보는 것이다(김주찬 & 윤성이, 2003).³⁾ 진영재와 김민욱

3) 기존의 연구가 이념성향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적으로 자신이 진보성향인지, 보수성향인지를 물

(2007), 김주찬과 윤성이(2003)의 연구에서 객관적 이념성향평가를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슈를 선별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문제가 가장 큰 유의수준을 갖고 있었으며, 사전검열 문제와 분배적 경제정의와 관련된 항목, 공무원 노조허용 문제도 높은 유의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문(증세와 빈곤층 지원, 고교평준화, 공무원 노조), 경제부문(정부의 기업활동 관여, 성장과 분배정책), 정치부문(대북지원, 국가보안법, 대미외교관계)으로 나눠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질문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2007년 대선 이념성향조사 설문지에서 해당정책에 관한 질문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예: 기업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할 때는 정부는 기업 활동에 관여해야 한다.). 각각의 설문문항에 어떻게 답했을 때 보수 또는 진보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장과 정부 중 시장을 중시하면 보수 그리고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면 진보로, 평등과 효율 중 평등을 더 중시하면 진보로, 효율을 더 중시하면 보수로 구분하였고,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높게 느끼면 진보로, 그렇지 않으면 보수로 구분하였다(김주찬, 윤성이, 2003).

총 8문항의 정치이념성향 설문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 전적으로 반대 - 5점: 전적으로

어보는 주관적 이념성향평가를 이용하였는데, 객관적인 이슈와 연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상적으로 주관적인 질문으로 분포를 측정하는 것은 올바른 예측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김무경, 이갑윤, 2005; 박상훈, 2001). 또한 주관적 평가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주찬, 윤성이, 2003).

찬성)로 구성되었는데, 전체 정치이념성향 중앙치($M=3.25$)를 기준으로 중앙치보다 작으면 보수로, 중앙치보다 크면 진보로 분류하였다. 보수($M=2.78$)와 진보($M=3.88$)의 차이는 유의하였다, $t(150)=-21.69, p<.001$.

정보탐색목표. 정보탐색목표는 정확목표와 보존목표로 분류하였으며(Kim, 2007), 정보탐색목표의 조작은 Austin과 Vancouver(1996)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사용하여, 각 목표에 할당된 실험참가자에게 다른 임무를 지시한 후 그에 맞추어 정보탐색을 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조작하였다. 탐색목표가 정확인 경우에는 지지후보자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정보탐색을 시작하게 하였으며, 정보탐색이 모두 끝난 후에 탐색한 내용을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묘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탐색목표가 보존인 경우에는 탐색을 시작하기 전에 지지후보자를 결정하였고, 정보탐색을 모두 마치고 지지후보자에 대한 설득력 있고 강력한 지지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중속변수

정보탐색양. 정보탐색양은 결정을 위해 획득하는 정보의 양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정보를 탐색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나 정보탐색의 회수로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제시판을 이용해 실험참가자가 접근했던 모든 정보의 수를 기록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실험참가자가 몇 개의 정보에 접근했는지를 알아내는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정보탐색패턴. 정보탐색패턴은 크게 두 가지(상표중심처리와 속성중심처리)로 구분된다(Bettman & Jacoby, 1976). 이 개념을 기반으로

정치정보탐색 연구에서는 정보탐색패턴을 후보자중심과 속성중심으로 구분하여 왔다(Russo & Doshier, 1983). 정보탐색패턴은 Payne(1976b)에 의해 개발된 방식으로 측정할 수 있다. 동일 후보자 내에서 속성정보를 확인했을 때는 ‘후보자중심’ 이동으로 기록되며, 같은 속성 내에서 한 후보자에서 다른 후보자로 이동하였다면 ‘속성중심’으로 기록된다(Huang & Price, 2001). 이 개념을 이용하여 Payne(1976b)은 후보자중심 처리패턴과 속성중심 처리패턴을 구분할 수 있는 방정식을 개발하였다. 즉 ‘후보자중심’ 이동 숫자를 N(후보자)라고 하고, ‘속성중심’ 이동 숫자를 N(속성)이라고 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그 비율을 구하는 방식이다.

$$\text{Payne 지수} = \frac{[N(\text{후보자}) - N(\text{속성})]}{[N(\text{후보자}) + N(\text{속성})]}$$

Payne 지수 값은 -1.00에서 1.00까지 나오며, N(속성)이 0이면 1.00, N(후보자)이 0이면 -1.00이 나온다. 만약 두 타입의 이동수가 같으면 0이 나오게 된다. 지수 값이 양수가 나오면 후보자중심처리가 우세하며, 음수가 나오면 속성중심처리가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컴퓨터 기반의 정보제시판은 실험참가자가 선택한 정보의 경로를 기억하게 되는데, 이를 분석하여 Payne 지수를 구하였다.

탐색정보종류. 정보제시판에 제시된 정보의 종류는 총 7개 범주대안으로 제시된 5명 후보자의 정당, 사회정책, 경제정책, 정치정책, 개인능력, 정치능력, 개인연고 등이다. 실험참가자가 어떤 종류의 정치정보에 접속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범주의 탐색량을 측정하였

다. 사회정책, 경제정책, 정치정책은 해당정보를 각 2개씩 제시하였기 때문에 이 범주의 탐색량은 평균을 내어 사용하였다.

실험재료

사전조사

사전조사에서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는 정치관심도를 측정하는 4문항과 정치이념성향을 측정하는 8문항, 각 정당의 이념수준을 평가하는 보충질문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정치관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정치관심도를 측정했던 이전의 연구(박찬욱, 1993; Banwart, 2007)를 근거로 하였다. 객관적 정치이념성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진영채와 김민욱(2007), 김주찬과 윤성이(2003)의 연구를 근거로 6개의 이슈를 선정하였고, 2006년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에서 실시한 국민이념성향조사 설문지 중 본 연구에서 선정한 이슈와 관련된 문항 8문항을 선별하였다. 그 밖에 보충질문으로 본 실험에서 결정대안으로 제시되는 후보자의 소속정당을 제시하고 각 정당의 이념성향에 대해 Likert 5점 척도(1점: 매우 보수 - 5점: 매우 진보)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전조사의 설문지에 대한 신뢰도를 구해 본 결과, 정치관심도 측정설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 이었으며, 정치이념성향 측정설문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 로 모두 유의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실험

본 연구와 유사한 형식의 정보제시판을 이용한 Huang과 Price(2001)의 연구를 보면, 가장 먼저 후보자의 정당-정책입장-후보자의 개인경력, 가족관계, 교육-후보자의 성격-선거운동내

역-여론조사결과 순으로 정보를 제시하였다. 이 형식을 참고로 하여, 후보자명(5명)×속성정보차원(10개)의 행렬매트릭스로 구성된 정보제시판을 컴퓨터로 제시하였다. 후보자명은 위쪽에 가로방향으로, 속성정보차원은 소속정당-정책 및 공약(사회부문)-정책 및 공약(경제부문)-정책 및 공약(정치부문)-개인적 능력-정치경력-개인적 연고 순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요인은 사회부문, 경제부문, 정치부문으로 나누어 각 2가지 정책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회정책은 중점적인 복지정책과 자립형 사립고에 관한 내용을, 경제정책은 세계경쟁력 증진방안과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내용을, 정치정책은 국가보안법과 대북정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5명의 후보자는 2007년 대선에서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순으로 선정하였고, 정보범주는 상술한 투표변수들을 반영해 정당, 사회정책, 경제정책, 정치정책, 개인적 능력, 정치적 능력, 개인 연고로 결정하였다. 각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정치학회의 대통령 선거 정책공약 평가단에서 제공하는 내용을 축약하였다.

실험 절차

실험참가자는 실험실에 들어와서 실험실의 컴퓨터로 안내되었고, 무선 할당된 정보탐색 목표를 조작하기 위한 지시문과 노트를 받은 후, 전반적인 실험소개와 유의사항을 들었다. 설명이 끝난 후에는 2007년 대선 상황을 전제로 하여 정보탐색목표에 적합하게 자유로운 정보탐색을 하도록 유도되었다. 탐색을 마친 후에는 정보탐색목표에 맞추어 탐색정보를 기록하도록 하였다. 실험에는 15-20분 정도의 시

간이 소요되었다.

결 과

조작체크

Kim(2007)은 정보탐색목표가 정확히 조작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탐색시간을 이용하였다. 즉 기존문헌에서 정확목표를 가진 사람이 보존목표를 가진 사람보다 정보탐색 시간이 더 길다는 연구결과에 근거해 탐색시간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조작체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사용해 정보탐색목표의 조작체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확목표($M=348.51$)의 실험참가자의 탐색시간이 보존목표($M=272.90$)의 실험참가자보다 유의하게 길었다, $t(1,158)=3.08, p<.01$.

정보탐색행동

본 실험은 유권자의 정보탐색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종속변수로 정보탐색양과 정보탐색패턴을 설정하고 다변량분산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우선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였다. 종속변수들 간 상관관계 검증을 위한 Bartlett's 검증 결과, 검증통계량은 11.67로 종속변수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p<.01$). 또한 각 실험조건이 종속변수에서 동일한 분산-공분산 구조를 가졌는지 검증하기 위해 Box's M 검증을 실시하였다. Box's M값은 44.49로 유의하였고($p<.01$), 각 실험조건이 사례수가 동일하므로 다변량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치로는 Wilk's λ 값을 참고하였다.

MANOVA 결과, 정치관심도, 정치이념성향,

정보탐색목표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 정치관심도 $F(2,143)=4.30, p<.01$; 정치이념성향 $F(2,143)=3.58, p<.01$; 정보탐색목표 $F(2,143)=23.47, p<.001$. 또한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성향 간 상호작용에 따라 정보탐색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2,143)=5.08, p<.01$.

MANOVA 결과는 각 실험조건에 따라 정보탐색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각 실험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발생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2변의 단변량 F 검증을 시행하므로 유의수준 α 의 증가를 막기 위해 Bonferroni 조정절차를 사용하여 단변량 F 검증의 유의수준을 .015로 낮추고 2개의 종속변수군의 유의수준을 $\alpha=1-(1-.015)^2=.03$ 이 되도록 하였다.

정보탐색양

분산분석 결과, 탐색양에 대해 정보탐색목표의 주효과가 있었다, $F(1,144)=45.04, p<.001$. 정확목표집단($M=43.83$)의 탐색양이 보존목표집단($M=31.61$)보다 많았다. 즉 정치정보를 탐색하는 상황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탐색하려는 유권자가 자신의 신념을 보존하려는 유권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탐색하였다.

또한 정치관심도, 정치이념성향, 정보탐색목표 간의 삼원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F(1,144)=5.86, p<.03$. 이에 단순상호작용 분석을 한 결과, 보존목표에서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성향 간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144)=15.71, p<.001$. 따라서 이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탐색목표가 보존이면서 정치관심도가 낮을 때 탐색양은 이념성향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F(1,144)=13.47, p<.001$. 탐색목표가 보존이면서

정치관심도가 낮은 유권자의 정치이념이 진보일 때($M=39.26$), 보수인 경우($M=25.89$)보다 더 많은 정치정보를 탐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성향 간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144)=10.15, p<.01$. 이에 대해 단순주효과 분석을 한 결과, 정치관심도가 높은 참가자는 정치정보탐색양에서 정치이념성향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보수, $M=39.24$; 진보, $M=35.34$), $F(1,144)=1.73$. 그러나 정치관심도가 낮은 참가자는 정치이념(보수, $M=34.29$; 진보, $M=42.00$)에 따라서 정보탐색양이 유의하게 달랐다, $F(1,144)=6.78, p<.01$. 다시 말해 정치관심도가 낮아도 진보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정치관심도가 높은 유권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탐색했다. 하지만 정치관심도가 낮으면서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정보탐색을 가장 적게 하였다.

정보탐색패턴

분산분석 결과, 어떠한 상호작용효과 없이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성향, 정보탐색목표에 따른 주효과만 확인되었다, 정치관심도 $F(1,144)=7.59, p<.03$; 정치이념성향 $F(1,144)=6.91, p<.03$; 정보탐색목표 $F(1,144)=7.74, p<.03$. 정치관심도가 낮은 경우($M=-.12$)보다 높은 경우($M=-.44$)에 더 강한 속성중심 탐색패턴을 보인다.⁴⁾ 정치이념성향에 있어서도 보수인 경우($M=-.13$)보다 진보인 경우($M=-.44$)에 더 강한 속성중심 탐색패턴이 확인되며, 탐색목표가 보존인 경우($M=-.12$)에 비해서 정확한 경우($M=-.45$)에 속성중심 탐색패턴이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유권자는 속성중심의 탐색패턴을 갖지만, 각 변수

4) 평균에서 '+' 부호는 후보자중심패턴을 그리고 '-' 부호는 속성중심패턴을 의미한다.

에 따라서 속성중심 탐색패턴의 강도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탐색정보종류

본 실험은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7가지 범주의 정치정보를 각 후보자 별로 제시한 후, 각 조건의 유권자들이 어떤 종류의 정치정보를 더 많이 보는가를 알아보았다. 효과적인 분석을 위해 먼저 각 독립변수 별로 정보종류의 탐색 양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았다. 각 독립변수별로 가장 많이 보는 정보종류의 순위는 표 1에 제시하였다.

더 구체적인 정보탐색종류를 분석하기 위해 각 독립변수와 정보종류 간의 단순주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치관심도가 낮은 경우 정보종류의 탐색 양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정치관심도가 높은 경우에는 정보종류의 탐색 양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6,1050)=3.16, p<.01$. 정치이념성향과 정보탐색목표는 어떤 조건에서라도 정보종류의 탐색 양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보종류@보수 $F(6,1050)=2.99, p<.01$; 정보종류@진보 $F(6,1050)=3.27, p<.01$; 정보종류@정확 $F(6,1050)=2.92, p<.01$; 정보종류@보존 $F(6,1050)=3.18, p<.01$. 즉 이 결과를 통해 유권자는 7개의 정보종류를 끌고루 보지 않고 특정 정보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보는 정보는 사회정책이다. 반면 개인연고 또는 정당은 가장 적게 보는 정보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당정보는 정치이념성향과 탐색목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정치이념성향 $F(1,1008)=25.22, p<.001$; 탐색목표 $F(1,1008)=29.60, p<.001$. 즉 정치이념이 보수일 때($M=3.03$)보다 진보일 때($M=3.84$), 탐색목표가 보존일 때($M=2.53$)보다 정확일 때($M=4.34$) 더 많이 정당정보를 보았다. 경제정책정보 역시 정치이념성향과 탐색목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정치이념성향 $F(1,1008)=6.84, p<.01$; 탐색목표 $F(1,1008)=13.03, p<.001$. 즉 보수를 가졌을 경우($M=3.79$)보다 진보이념을 가졌을 경우($M=3.93$)에, 보존목표를 가졌을 경우($M=3.15$)보다 정확목표를 가졌을 경우($M=4.57$)에 더 많이 경제정책정보를 보았다.

그 외에도 사회정책, 개인능력, 정치능력정

표 1. 각 독립변수에서의 탐색정보 순위

순위	정치관심도		정치이념성향		정보탐색목표	
	저	고	보수	진보	정확	보존
1	사회정책(4.40)	사회정책(4.04)	사회정책(3.93)	사회정책(4.13)	사회정책(4.64)	사회정책(3.42)
2	경제정책(3.97)	개인능력(3.76)	경제정책(3.79)	정치능력(3.95)	경제정책(4.57)	개인능력(3.32)
3	정치능력(3.91)	정치능력(3.75)	정치정책(3.76)	경제정책(3.93)	정당(4.34)	정치능력(3.32)
4	개인능력(3.88)	경제정책(3.75)	개인능력(3.72)	개인능력(3.92)	정치능력(4.34)	정치정책(3.22)
5	정치정책(3.82)	정치정책(3.71)	정치능력(3.71)	정당(3.84)	개인능력(4.33)	경제정책(3.15)
6	정당(3.67)	개인연고(3.26)	개인연고(3.26)	정치정책(3.77)	정치정책(4.32)	개인연고(2.87)
7	개인연고(3.29)	정당(3.20)	정당(3.03)	개인연고(3.29)	개인연고(3.68)	정당(2.53)

보 역시 정치이념성향과 정보탐색목표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고, 이 정보범주에서도 정당정보와 경제정책정보에서 상술하였듯이 진보이념을 가진 경우와 정확목표를 가진 경우에 해당정보를 더 많이 보았다.

앞에서 기술한 분석들은 각 독립변수에 따라서 탐색하는 정보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독립변수 간의 관계가 탐색하는 정보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7개의 정보종류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정보종류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Bartlett's Test를 시행한 결과, 검정통계량이 680.61로 유의하여($p < .001$) MANOVA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였다. 각 실험조건이 종속변수에서 동일한 분산-공분산 구조를 가지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Box's M 검사 값도 485.40으로 유의하였다($p < .001$). 각 실험조건의 사례수가 동일하였으므로 다변량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치로 Wilks's λ 값을 참고하였다. 다변량 분산분석결과, 정보탐색목표에 따른 주효과만 유의하였다, $F(7,138)=10.43, p < .001$. 이 결과는 실험조건에 따라 탐색정보종류가 다르다는 것만을 나타내기에 구체적으로 각 실험조건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단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7번의 단변량 F 검증을 시행하므로 유의수준 α 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Bonferroni 조정절차를 사용하였다. 단변량 F 검증의 유의수준을 .004로 낮추어 7개의 종속변수군의 유의수준이 $\alpha=1-(1-.004)^7=.03$ 이 되도록 하였다.

단변량분산분석 시, 각 독립변수의 주효과는 앞의 각 독립변수별 분석에서 다루었기에 이번에는 주효과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이원상호작용과 삼원상호작용만을 다루어 독립변수들의 관계에 따른 탐색정보의 종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정책의 경우,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성향간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 $F(1,144)=7.79, p < .01$,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성향, 정보탐색목표 간의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144)=6.70, p < .001$. 이에 구체적인 상호작용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삼원상호작용에 대한 단순상호작용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정보탐색목표에 따라서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성향의 상호작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존목표일 때,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성향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144)=14.47, p < .001$. 이에 해당 상호작용에 대한 단순단순주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보존목표 하에서 정치관심도가 낮은 경우에 정치이념성향에 따라서 사회정책 탐색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F(1,144)=13.18, p < .001$. 보존목표를 갖고 정치관심도가 낮은 경우, 보수이념일 때($M=2.68$)보다 진보이념일 때($M=4.11$) 더 많은 사회정책을 검색하였다. 이원상호작용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에서도 위의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정치관심도가 낮은 경우, 정치이념이 보수일 때($M=3.65$)보다 진보일 때($M=4.40$) 더 많은 사회정책 정보를 탐색하였다, $F(1,144)=3.94, p < .05$.

경제정책의 경우,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성향간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 $F(1,144)=6.24, p < .01$, 정치관심도, 정치이념성향, 정보탐색목표 간의 삼원상호작용도 유의하였다, $F(1,144)=6.58, p < .01$. 먼저 유의한 삼원상호작용에 대한 단순상호작용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보존목표에서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고, $F(1,144)=12.82, p <$

.001, 이에 단순단순주효과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보존목표에서 정치관심도가 낮은 경우 정치이념성향에 따라서 경제정책 탐색 정도가 다르며, $F(1,144)=10.50, p<.01$, 보존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관심도가 낮은 경우, 보수이념을 가졌을 때($M=2.76$)보다 진보이념을 가졌을 때($M=4.03$) 더 많은 경제정책을 탐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원상호작용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에서도 위의 결과와 동일한 맥락에서 정치이념이 진보일 때, 정치관심도가 낮은 경우($M=4.29$)가 정치관심도가 높은 경우($M=3.58$)보다 경제정책 탐색이 더 많았다, $F(1,144)=3.93, p<.05$.

정치정책의 경우도 경제정책과 동일하게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성향간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으며, $F(1,148)=6.95, p<.01$, 정치관심도, 정치이념성향, 정보탐색목표 간의 삼원상호작용 역시 유의하였다, $F(1,144)=5.80, p<.01$. 먼저 유의한 삼원상호작용에 대한 단순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존목표에서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였기에, $F(1,144)=12.73, p<.001$, 이에 대한 단순단순주효과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보존목표에서 정치관심도가 낮은 경우 정치이념성향에 따라서 정치정책탐색 정도가 유의하게 달랐고, $F(1,144)=7.10, p<.01$, 보존목표에서 정치관심도가 높은 경우에도 정치이념성향에 따라서 정치정책탐색 정도가 유의하게 달랐다, $F(1,144)=5.67, p<.01$. 즉 보존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관심도가 낮은 경우 보수이념을 가졌을 때($M=2.58$)보다 진보이념을 가졌을 때($M=3.82$) 더 많은 정치정책을 탐색하였다. 또한 보존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관심도가 높은 경우에는 보수이념을 가졌을 때($M=3.79$)에 진보이념을 가졌을 때($M=2.68$)보다 더 많

은 정치정책을 탐색하였다. 이원상호작용에 대한 단순주효과 분석에서는 정치이념이 보수일 때, 정치관심도가 낮은 경우($M=3.41$)보다 정치관심도가 높은 경우($M=4.12$)에 정치정책 탐색이 많았다, $F(1,144)=3.93, p<.05$.

정치능력정보의 경우,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성향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144)=9.86, p<.01$. 이에 단순주효과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 정치관심도가 낮은 경우에 정치이념에 따라서 정치능력정보 탐색이 유의하게 달랐다, $F(1,144)=7.54, p<.01$. 구체적으로 정치관심도가 낮으면서 정치이념이 보수일 때($M=3.40$)보다 진보일 때($M=4.42$) 더 많은 정치능력정보를 탐색하였다.

개인연고정보의 경우에도,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성향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144)=6.10, p<.01$. 이에 단순주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정치관심도가 낮을 때, 보수적인 유권자가 개인연고를 탐색하는 정도($M=2.84$)가 진보적인 유권자가 개인연고를 탐색하는 정도($M=3.68$)보다 낮았다, $F(1,144)=3.97, p<.05$. 그러나 정치관심도가 높을 때, 보수적인 유권자가 개인연고를 탐색하는 정도($M=3.68$)가 진보적인 유권자가 개인연고를 탐색하는 정도($M=2.90$)보다 높았다, $F(1,144)=3.94, p<.05$. 결과적으로 관심도가 낮을 때 진보이념을 가진 유권자가, 관심도가 높을 때는 보수이념을 가진 유권자가 더 많은 개인연고 정보를 탐색하였다.

논 의

본 연구는 유권자의 정치관심도, 정치이념성향, 정보탐색목표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정보탐색행동의 지표로 알려진 정보탐색양과 정보탐색패턴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각 집단별로 더 많이 탐색하는 정치정보의 종류가 있는지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결과, 정보탐색목표가 보존인 경우보다 정확일 때에 정보탐색양이 더 많았다. 이를 통해 자신의 지지후보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범위내의 한정된 정보만을 획득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범위의 많은 정보를 획득하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탐색목표는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성향의 상호작용에도 조절적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객관적이며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유권자는 자신의 정치이념 및 정치관심도와 관계없이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탐색하였다. 이는 정확목표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비편향적인 탐색행동을 한다는 선행연구(Kim, 2007)의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지지후보가 있고 이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존목표를 가지면서 보수이념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정치관심도가 높을 때에 낮은 경우보다 더 많은 탐색을 하였다. 반면 진보이념성향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는 정치관심도가 낮을수록 더 많은 탐색을 하였다. Delli와 Keeter(1996), Kenski와 Jamieson(2000)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치관심도와 정치정보 획득욕구는 비례관계를 갖는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 한다. 따라서 보수이념을 가진 유권자의 탐색양은 이러한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진보이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즉 정치관심도가 낮을수록 더 많은 정보탐색을 하였다. 이에 대해 정치

관심도가 높은 유권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에 대해 이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탐색을 많이 하지 않지만, 관심도가 낮은 유권자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적은 상태에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자를 옹호할 수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해 많은 탐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정치관심도가 낮은 경우, 진보이념을 가진 유권자가 보수이념을 가진 유권자보다 더 많은 정보탐색을 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정치관심도가 낮은 조건에서 진보이념의 유권자가 더 많은 정치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토론상황이나 사회적 논쟁상황에서 진보세력이 보다 논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현상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정보탐색패턴에 대한 결과에서, 대부분의 유권자가 속성중심의 탐색패턴을 갖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성향, 정보탐색목표에 따른 주효과가 확인되었지만, 이는 유권자가 얼마나 강한 속성중심의 탐색패턴을 갖는가에 대한 해석기준이 될 뿐, 후보자중심 또는 속성중심패턴의 선택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었다. 탐색패턴이 대부분 속성중심이었다는 점은 많은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Russo와 Doshier(1983)는 속성중심탐색은 후보자중심탐색에 비해서 인지적 노력을 덜 기울이기 때문에 더 편리하고 쉬운 탐색방법이라고 하였으며, Huang과 Price(2001)의 연구결과 역시 탐색노력수준이 낮을 경우 속성중심탐색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Bettman(1979)에 따르면 저관여 조건에서 비보상모델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속성중심 탐색패턴은 비보상모델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다시 말해 유권자는 정치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선거참여율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 연구결과 역시 대학생이 정치적 저관여 상태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정보탐색목적과 정보탐색패턴의 관련성을 분석한 선행연구(Huang & Price, 2001)에 따르면, 본 연구와는 다르게 후보자중심의 탐색패턴이 강하게 나왔다. 해당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결과가 실험 참가자의 정당소속감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당시 실험은 실험참가자의 지지정당과 동일한 정당의 후보자들만을 검색하도록 하였고, 내 집단에 속하는 후보자들의 정보가 대안(후보자)중심으로 탐색될 가능성이 높았다. Ostrome, Carpenter, Sedikides, Li(1993)의 연구에 따르면, 내집단의 정보는 대안(후보자)중심으로 형성되는 반면, 외집단의 정보는 속성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한 정당소속의 후보자들을 대안으로 제시한 연구에서는 속성중심의 탐색패턴이 우세하였고, 이는 실험참가자의 정당소속감이 크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즉 실험참가자가 선호하는 정당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는 저관여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속성중심탐색패턴이 강하게 나온 또 다른 원인으로 정보제시판의 정보제시형태를 들 수 있다. Herstein(1981)의 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보제시판의 형태는 속성중심패턴이 우세하게 나오는 형식이다. 즉 후보자의 순서와 속성의 순서가 고정된 형태의 정보제시판은 속성 중심적이며, 후보자의 순서만 고정되어 있고 속성의 순서는 고정되어 있지 않는 정보제시판 형태는 후보자 중심적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가로와 세로 배열과 세로의 정보속성 배열이 고정되어 있

는 속성 중심적인 정보제시판을 이용하였다. 한편 5×10 형식의 정보제시판으로 인해 실험 참가자는 총 50개의 정보를 제시받았는데 이것이 제한된 시간 내에 탐색하고 습득하기에 너무 많은 수준이었다면 참가자는 인지적 노력을 줄이기 위해서 속성중심의 탐색을 했을 것이며, 이것이 실험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가 어떤 종류의 정보를 탐색하는지도 분석하였다. 제시한 7개 범주의 정보는 투표행태요인들을 구체화하였기 때문에 각 조건의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보종류가 존재한다면 선거마케팅 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우선 각 독립변수를 통제했을 때 단순효과분석이 유의한 결과를 통해서 특정 조건의 유권자가 더 많이 보는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당정보의 경우, 정치관심도가 낮거나 진보이념을 가진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이 탐색한다. 그러나 조건과 관계없이 유권자는 사회정책을 가장 많이 탐색하였다. 또한 각 조건에서 정당정보 또는 개인연고정보를 가장 적게 보았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투표행태요인들 중 정당요인이나 후보자요인보다 정책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요인 중에서도 사회부문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개의 독립변수의 관계가 정보탐색종류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의 이원 및 삼원상호작용이 나타난 정보종류는 사회정책, 경제정책, 정치정책, 정치능력, 개인연고이다. 모든 이원상호작용이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 간에 발생했다. 즉 각 정보종류를 선호하는 정도가 정치관심도와 정치이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인데, 정치관심도가 낮을 때는 진보적인 유권자가 보수적인 유권자보다 해당정보를 더 선호하였다. 하지만 정치관심도가 높을 때는 보수이념을 가진 유권자가 진보이념을 가진 유권자보다 해당정보를 더 선호하였다.

정치관심도, 정치이념성향, 정보탐색목표에 따른 삼원상호작용은 정책에 관한 경우에만 발생하였는데, 정치정책의 경우에만 그 패턴이 다름에 유의해야 한다. 다시 말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은 정치관심도가 낮은 경우에만 이념에 따라 해당정보의 탐색수준에 차이가 있었고, 특히 진보이념을 가진 유권자가 보수이념을 가진 유권자보다 해당정보를 더 많이 탐색하였다. 그러나 정치정책정보의 경우에는 정치관심도가 높으면서 보수이념을 가진 경우에 진보이념을 가진 경우보다 더 많이 탐색하였다. 정책부분의 정보에서만 삼원상호작용이 발생한 것은 이 부분의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시할 때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책정보의 선호에는 다양한 변수들이 관계되어 있는 만큼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해당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유권자의 특성에 따라 그 수용정도가 달라질 것이기에 선거캠페인 역시 유권자를 다양하게 세분화하고 그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종류도 달라져야 한다.

유권자의 정보탐색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먼저 현재 유권자 및 정치정보환경을 다양한 변수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정치적 무관심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바, 본 연구의 결과는 여대생 유권자의 정치적 무관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정치관심도라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실험참가자가 보여주는 정보탐색행동은 저관여 상태의 소비자가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패턴과

유사했다(예, Huang & Price, 2001). 이는 오늘날 유권자가 정치적으로 저관여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정치정보환경 자체가 너무 복잡하여 인지적 노력을 기울이는 보상규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태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실을 단순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중심적인 탐색패턴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현실의 정보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 속성중심탐색패턴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정보환경 자체를 단순화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정보전달매체가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유권자의 지식수준도 높아지고 있어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정보에 노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보환경은 복잡해지는데 반해 유권자의 정보탐색행동은 오히려 단순해지고 최소한의 정보를 습득하려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또 다른 의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소비자 관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유권자를 세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선거캠페인은 유권자를 지역균열이나 세대균열 등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였으나, 실제로는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의 변수를 기준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개인특성 및 과업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가 각기 다른 정보탐색활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권자의 다양한 정보탐색활동의 확인은 소비자행동에서의 정보탐색 및 정보처리에 관한 이론을 이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정치마케팅 영역과 통합하여 유권자의 정보탐색활동에 적합한 정보와 정보환경을 개발하고 유권자의 정보탐색을 용

이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행동을 소비자행동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많은 연구가 유권자의 투표결정요인을 알아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유권자의 정보탐색행동 자체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특히 유권자를 소비자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영미권에서는 유권자를 정치서비스 및 정치후보자를 소비하는 소비자로서 간주하여 정치전략 형성 및 선거캠페인에 이르기까지 마케팅기법을 도입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러한 움직임이 활발하지 않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치 전략과 선거 전략이 투표율과 정치무관심의 수준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도입해 이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추후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제시판 형식에 근거한 실험연구 자체의 한계점이다. 정보제시판 형식은 실험참가자의 탐색활동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보제시판 형태 자체가 인위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현실에서 신문이나 인터넷과 같은 매체는 정보제시판과 유사한 형태로 정보를 제시하지만, TV나 라디오에서는 이러한 형식을 이용하지 않는다. 또한 정보제시판은 실험참가자에게 동일한 카테고리의 정보를 제공하며 언제나 접근가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제가 실제 환경과는 다르다. 실제 선거캠페인 과정에서 유권자가 접하는 정치정보는 매체에 따라 내용이 모두 다르며, 접근가능성도 동일하지 않다. 그러므로 추후연구에서는

Herstein(1981)의 후보자중심적 정보제시형식 또는 Redlawsk(2004)의 역동적 정보제시판 실험방법을 적용하여, 다양한 정보제시형태를 통해 다른 정보가 제시될 때 유권자의 정보탐색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통제변수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균열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균열구조로 이념균열을 설정하였지만 여전히 지역균열은 유권자의 투표행동을 설명하는 데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험참가자의 출신지역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지 않아서 지역균열이 실험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통제변수를 보다 엄격히 조작하여 이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보탐색행동은 정보처리과정의 일부 분으로 기본적으로 기억과 회상이라는 인지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많은 연구가 정보탐색행동을 기억과 함께 연구한다(Huang & Price, 200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순수하게 정보탐색행동만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여 실험하였기 때문에 실험참가자의 정보처리과정에서 기억과 정보탐색행동 간에 상호작용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연구에서는 실험범위를 보다 넓은 정보처리과정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정치정보탐색행동이 직접적으로 투표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실제로 유권자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목적이 유권자의 결정을 예측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탐색행동과 투표결정과의 관련성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탐색목표를 정확과 보

준으로 설정하였지만, 추후연구에서는 판단과 선택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한다면 투표결정에 대한 통찰력 있는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에 따른 연구결과 일반화의 한계이다. 실험참가자 대부분이 20대 초반인 여대생이었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에게 일반화시키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실험참가자를 연령별, 성별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전체 유권자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경태 (2003). 한국 대통령 선거 어떤 유권자가 참여하나?: 선거관심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7(1), 91-110.
- 강원택 (2000). 지역주의 투표와 합리적 선택: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34(2), 51-67.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집문당.
- 김무경, 이갑윤 (2005). 한국인의 이념정향과 갈등. 사회과학연구, 13(2), 6-32.
- 김용철, 윤성이 (2004). 제 17대 총선에서 인터넷의 영향력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8(5), 197-216.
- 김주찬, 윤성이 (2003).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념성향이 투표에 미친 영향. 21세기정치학회보, 13(2), 1-17.
- 마인섭 (2003). 정당과 사회균열구조, 심지연 편저. 현대 정당정치의 이해. 서울: 백산서당.
- 박상훈 (2001).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 제16대 총선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35(2), 113-134.
- 박찬욱 (1993). 제 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정당지지분석,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1. 서울: 나남, 67-115.
- 안순철, 조성대 (2005). 민주화이후 한국정치의 갈등 구조와 전망: 공간이론과 2002년 대통령 선거. 21세기 정치학회보, 15(1), 111-131.
- 유동근 (1990). 자동차구매자의 정보탐색활동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여름호, 27-43.
- 윤종빈 (2007). 2007 대선과 수도권 투표경향: 지역, 이념, 그리고 인물. 한국정당학회보, 6(2), 65-95.
- 윤천주 (1987). 한국정치체계: 정치상황과 정치참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갑윤 (1998).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오름.
- 이갑윤, 이현우 (2008). 이념투표의 영향력 분석: 이념의 구성, 측정 그리고 의미. 현대정치연구, 봄호, 137-166.
- 이남영 (1993). 투표참여와 기권. 한국의 선거, 서울: 나남, 21-47.
- 조성대 (2008). 균열구조와 정당체계: 지역주의, 이념, 그리고 2007년 한국 대통령선거. 현대정치연구, 봄호, 169-198.
- 조중빈 (2003). 16대 대통령선거와 세대. 2003년 한국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 진영재, 김민욱 (2007). 한국인의 이념성향 인식과 후보자 및 정당지지 행태와의 상관관계: 16대 대통령 선거와 17대 국회의원 선거 비교 분석. 한국과 국제정치, 23(3), 65-98.
- 최장집 (2003).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서울: 후마니

- 타스.
- 최준영, 조진만 (2005). 지역균열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경험적 고찰: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이념과 세대 균열의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9(3), 375-394.
- Austin, J. T., & Vancouver, J. B. (1996). Goal construct in psychology: Structure, process, and content. *Psychological Bulletin*, 120, 338-375.
- Banwart, M. C. (2007). Gender and young voters in 2004.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0(9), 1152-1168.
- Bettman, J. R. (1979). *An information processing theory of consumer choice*. MA: addison-wesley.
- Bettman, J. R., & Jacoby, J. (1976). Patterns of processing in consumer information acquisition, *Advanced in Consumer Research*, 3 Chicago: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315-320.
- Conway, M. (1991).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 2nd. Ed.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 Crosby, L., & Taylor, J. (1983). Psychological commitment and its effects on post decision evaluations and preference stability,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March), 413-431.
- Delli, C. M. Z., & Keeter, S. (1996).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Ford, J. K., Schmitt, N., Schechtman, S. L., Hulst, B. M., & Doherty, M. L. (1989). Process tracing methods: Contributions, problems, and neglected research question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 43(1), 75-117.
- Gollwitzer, P. M., & Kinney, R. A. (1990). Effects of deliberative mind-sets on the illusion of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531-542.
- Huang, L. N., & Price, V. (2001). Motivations, goals, information search, and memory about political candidates. *Political Psychology*, 22(4), 665-692.
- Hughes, J. E., & Conway, M. M. (1997). Public opinion and political participation, ed. Barbara Norrander and Clyde Wilcox. *Understanding Public Opinion*, Washington, D. C.: CQ Press.
- Inglehart, R. (197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enski, K., & Jamieson, K. H. (2000). The gender gap in political knowledge: Are women less knowledgeable than men about politics? In K. H. Jamieson, *Everything you think you know about politics and why you're wrong*. NY: Basic Books.
- Kim, Y. M. (2007). How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interact in selectivity: Investigating the moderating effects of situational information processing goals in issue publics' web behavior. *Communication Research*, 34(2), 185-211.
- Kruglanski, A. W. (1990). *Lay epistemics and human knowledge: cognitive and motivational bases*. NY: Plwnum.
- Lau, R. R. (1995). Information search during an election campaign: Introducing a processing-tracing methodology for political scientists. *Political judgement: Structure and Proces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ess-Marshment, J. (2001). The marriage of politics and marketing. *Political Studies*, 49, 692-713.
- Lipset, S. M., & S. Rokkan (1967).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NY: Macmillan.
- Lodge, M. (1995). Toward a procedural model of candidate evaluation. *Political Judgement: Structure and Process*.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ilbrath, L. W., & Goel, M. 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how and why do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O'Cass, A., & Pecotich, A. (2005). The dynamics of voter behavior and influence processes in electoral markets: a consumer behavior perspective.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58, 406-413.
- Ostrme, T. M., Carpenter, S. L., Sedikides, C., & Li, F. (1993). Differential processing of in-group and out-group inform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21-34.
- Payne, J. W. (1976a). Heuristic research processes in decision making.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3, Chicago: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321-327.
- Payne, J. W. (1976b) Task complexity and contingent processing in decision making: An information search and protocol analysi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Performance*, 16(august), 327-366.
- Powell, B. Jr. (1986). American voter turnout in comparative perspectiv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0, 17-43.
- Rae, D. W., & Taylor, M. (1970). *The analysis of political cleavag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Redlawsk, D. P. (2004). What voters do: Information search during election campaigns. *Political Psychology*, 25(4), 595- 610,
- Russo, J. E., & Doshier, B. A. (1983). Strategies for multiattribute binary choice.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n*, 9, 676-696.
- Teixeira, R. A. (1992). *The disappearing American voter*. Washington, D. C.: Borrkings Institution.
- Verba, S., Burns, N., & Schlozman, K. L. (1997). Knowing and caring about politics: Gender and political engagement. *Journal of Politics*, 59(4), 1051-1072.
- Verba, S., Schlozman, K. L., Brady, H. E.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Wolfinger, R. E., & Rosenstone, S. J. (1980). *Who vo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논문투고일 : 2010. 05. 04
1 차심사일 : 2010. 06. 07
게재확정일 : 2010. 07. 19

The effect of political interest, ideology, and searching goal on political information search: with female university students

Yoon Yang

Ewha Womans University

Soo Jeong Hong

The Grand National Par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ideologies, and information-searching goals influence the amount of information voters search, the ways in which people search for information about political candidates, and the type of information they selec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under accuracy goal searched much more information and the participants under the high level of interest were not affected by conservative ideology, but the participants with the low level of interest were influenced by the liberal ideology and viewed substantially more information. And most of participants had the attribute-centered searching pattern. The social policies were accessed most, however, the information about party and personal background of a candidate were found least.

Key words : *political interest, political ideology, information searching goal, political information search*